부처님의 열반도 '회자정리'



新 불교사자성어

㉑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會者定離).' 또는 '만난 자는 반드시 이별하게 된다(會者定離)' 는 뜻이다.

한역본 〈대반열반경〉 제2권에 있는 사자성어로 경전 원문은 '부성필유쇠(夫盛必有衰), 합회유별리(合會有別離)' 이다. 번성하면 반드시 쇠함이 있고, 만나면 헤어짐이 있다는 뜻이다. 흥함이 있으면 망함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자필멸 회자정리(生者必滅, 会者定離)' 라고도 한다.

한역본 〈대반열반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원래는 초기불전의 하나인 〈마하파리닙바나(대반열반경, 붓다의 위대한 입적)〉에 있는 말씀으로서, 부처님의 생애 마지막 장면에 나온다.

부처님께서는 80세가 되던 해 노쇠한 몸을 이끌고 최후의 교화 여정에 오르신다. 비구들과 함께 라자가하(왕사성)를 출발하여 고향인 카필라바스투를 향한다. 부처님께서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쿠시나가라(열반지)에서 입적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대반열반경〉이다. 우리말로 풀어 쓰면 '부처님의 위대한 열반(입적, 입멸)' 이 된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여로(旅路)의 곳곳을 거치면서 때로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또 때로는 이교도(異敎徒)들에게 '올바른 진리란 무엇' 이며 '어떻게 닦고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부처님께서는 평소 찬란하고 위대했던 모습과는 달리 제자 아난다 혼자 지켜보는 가운데 입멸을 맞이하는데, 두 그루의 사라 나무(사라쌍수) 사이에 몸을 기댄 채, 오른쪽 옆구리를 아래로 두고 발 위에 발을 포갠 자세를 취한 다음 선정 자세로 열반하신다. 인도 불교 4대 성지인 열반지에 가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하시어 고행, 성도(成道), 한 평생 무지한 중생을 일깨워주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를 초월한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붓다는 인류사의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마감(열반)하셨다. '붓다의 위대한 열반(입적)' 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멸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다. 물론 상수제자들은 입멸을 담담하게 맞이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인간 존재의 법칙' 으로 받아들였지만, 오래도록 부처님을 시봉했던 아난다는 부처님의 입멸이 다가왔음을 알고 외진 곳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아난다를 위로하셨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는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고 전부터 말하지 않았더냐(會者定離)."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교훈을 남기신다.

"비구들이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쓰러져 가는 것,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라.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너 자신을 의지할 뿐, 타인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을 '자등명, 법등명' 혹은 '자귀의(自歸依) 법귀의(法歸依)' 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라' 는 뜻이다.

즉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안목을 갖추라는 뜻이다. 팔정도의 하나인 정견, 정안(안목)을 갖추라는 말인데, 스스로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남의 말을 추종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안목이란 수행에 대한 안목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정견 즉 자기 자신의 안목을 강조하신 것은 출가하여 처음 두 명의 선인(仙人)을 만났고, 또 뼈만 앙상할 정도로 극도의 고행을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열반은 만난 자, 태어난 자는 언젠가는 소멸하고 헤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법칙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머리부터 발끝까지 꿰뚫는 것이 전기대용

〈全機大用〉



격절록 강설

㉑ 향엄수어 2

[評唱 2]

後學之流 須是透過這關捩子 始可出得身吐得氣. 若透不過 坐在這裏 名為死漢 有什麼用處. 你看得底人迴別 便知他落處. 香嚴纔垂此語 便有虎頭上座出云 "上樹即不問 未上樹請和尚道" 香嚴呵呵大笑. 你道 香嚴笑箇什麼. 若知落處說什麼上與不上. 若不知落處 也須退步看始得.

후학들은 모름지기 저 관려자(關捩子, 문제의 핵심)를 꿰뚫고 통과해야, 비로소 몸을 뛰쳐나와 기염을 토해낼(出身吐氣)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꿰뚫어 통과하지 못하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기만 한다면 이는 죽은 놈이라 할 것이니, 어디에다 쓰겠는가? 그대들은 저 득저인(得底人, 도를 얻은 사람)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보라, 그는 바로 그 낙처(落處)를 알아버린다.

向嚴纔垂此語 便有虎頭上座出云 "上樹即不問 未上樹請和尚道" 香嚴呵呵大笑.

향엄이 대중에게 이렇게 수어하자마자 곧바로 호두 상좌가 나와 말했다.

"나무에 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나무에 오르지 않았을 때는 어떤지 청컨대 화상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향엄이 가가대소(呵呵大笑)했다.

你道 香嚴笑箇什麼.

그대들은 말해보라! 향엄이 무엇을 보고 웃었는가? 만약 낙처를 알았다면 무슨 올랐느니 오르지 않았느니를 말하겠는가! 만약 낙처를 알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若知落處說什麼上與不上. 若不知落處 也須退步看始得.

若是作者 當機便見 若擬議之間 覿面蹉過. 或不落二邊 對也不是 不對也不是 作麼生却得見古人意去. 到這裏 若是具通方底手脚 說甚麼樹上樹下對與不對. 如今山僧在這裏 是上樹 是未上樹 是對是不對.

만약 작자라면 대번에 그 문제의 핵심(機)을 바로 보겠지만, 조금이라도 주저주저 한다면 그 사이에 지나가버려 (기회를) 놓쳐버릴 것이다. 혹 양 변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대답해도 옳지 않고 대답하지 않아도 옳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고인의 뜻(古人意)을 보겠는가? 여기에 이르러 만약 통방작가의 솜씨(通方底手脚)를 갖추었다면 무슨 나무 위니 나무 아래니, 대답하느니 대답하지 않느니를 말하겠는가?

지금 산승은 여기서 나무에 오른 것인가, 나무에 오르지 않은 것인가? 대답한 것인가, 대답하지 않은 것인가?

雪竇拈香嚴與虎頭相見處 却教人致一問來 還有麼. 樹上道即易 樹下道即難 末後又道 "老僧上樹也 致將一問來" 這些子如馬前相撲 眨眼便輸. 雪竇於節角譊訛處 拈出令人見 羅籠不肯住 呼喚不回頭底漢 纔聞人舉 便知全機大用 善能拈提. 看雪竇老漢 也不妨奇特.

설두는 향엄과 호두 상좌의 상견처(相見處)를 염하고,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질문을 하도록 했는데, 어떤 것이 또 있는가? (설두는) "나무 위에서 말하는 것은 쉽지만, 나무 아래에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놓고는 끝에 가서 또 "노승이 나무에 올랐다. 자, 한 번 물어라" 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마치 달리는 말 앞에서 서로 싸우는(씨름하는) 것 같아서(馬前相撲), 눈 깜짝할 사이에 곧 참패할 것이다. 설두는 절각효와처(節角譊訛處)에서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였던 것이니, 그물에 머무는 것도 긍정하지 않고 불러도 머리를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야 사람들이 거론한 것을 듣자마자 바로 그 전기대용(全機大用)을 알고 염제(拈提)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두 노인네를 보라, 대단히 기이하고 특이하지 않은가!

＊원오어록에서는 전기대용(全機大用)을 "만년이 곧 일념이며 일념이 곧 만년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꿰뚫는 것이 전기대용이다.(萬年一念 一念萬年 透頂透底 全機大用)"고 말하고 있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㉑ 이해의 길 1

불교는 종교인가, 철학인가?

일반대학에서 불교철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 철학계에서는 종교인으로, 불교계에서는 철학자로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철학자가 되기도 한다.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일종의 경계인(marginal man)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적이면서 철학적인 불교의 성격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철학과 종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서구적 사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동양의 전통에서는 본래 철학이니, 종교니 하는 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구의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학자들은 서양의 체계에 따라 철학과 종교를 엄격히 구분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철학은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엄밀성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설을 세우거나 주장을 하게 되면, 가설이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학창시절 많이 배웠던 삼단논법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말이다.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는 명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죽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세우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종교는 학문적 체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거나 내세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적 표현들은 명제(命題)라고 부르지 않는다. 명제란 옳거나 그른 것이어야 하는데, 신이나 내세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종교는 검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 물론 신을 경험했다거나 전생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한 그것을 명제라고 할 수 없다. 종교를 검증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교 역시 이러한 체계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철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문의 대상이 꼭 검증 가능한 것일 필요는 없다. 거기에는 문학과 예술, 문화 등 검증을 벗어난 삶의 모든 양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악이나 미술 등이 학문의 대상으로서 대학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은 검증과는 무관한 수많은 의미들로 이루어진 총체다. 학문은 이러한 의미의 세계를 논외로 하지 않는다.

예술이나 종교와 철학은 이렇게 구분된다. 예컨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분명 예술행위에 속하지만, 그림 속에 나타난 세계관이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예술철학, 즉 미학의 영역이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종교의 영역이지만, 그 신앙이 우리 삶속에서 사회, 문화,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는 일은 학문에 속한다. 대학에서 종교철학이나 불교철학 등의 과목이 설강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본래 동양의 전통에서는 철학과 종교의 구분이 없었다. 철학은 한 민족이나 국가의 총체적인 삶의 표현이다. 모든 국가나 민족은 그들만의 삶의 양식이 있고, 이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불교가 탄생한 인도의 전통에서 철학은 곧 '앎' 이었고 종교는 '삶' 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적으로 성찰하면 철학이 되고, 이를 삶에서 실천하면 종교가 되었다. 그들은 지식이 실제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이 둘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았다. 동양에서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전통이 중시됐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서양의 철학적 시선에서 보면 불교는 철학이 아니며, '신과 인간의 만남' 이라는 서구의 낡은 종교적 시선에서 보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교는 가만히 있는데 자신의 입맛에 따라 이리 저리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교는 앎의 철학이며 삶의 종교다. 오늘도 나는 불자로서 붓다께 삼배를 올리고, 철학자로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사 면 공 고

- 승 번 : 111-0125
- 법 명 : 혜일 (속명 : 강부중)
- 주 소 :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236 정방사

위 상기자에 대해 지난 5월 21일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일로 스님)가 사면심사규정 제4조, 5조, 6조, 7조, 8조에 의거해 회의를 열고 사면(경감)을 결정 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불기 2563(2019)년 6월 1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성 오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제2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수계는 — 삼보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참된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를 통해 불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서원합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일 시
2019년 7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부산항 컨벤션센터
이벤트홀(5층)

수계동참금
20,000원

문 의
사무국 051-501-7554

三師七證師

전계대화상
성 우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전계대화상)

갈마아사리
수 불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초대회장)

교수아사리
수 진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2대회장)

존중아사리
지 현 스님 (송광사 율주)
경 성 스님 (해인사 율주)
심 산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회장)
정 현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원 범 스님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덕 문 스님 (통도사 율원장)
만 초 스님 (전법도량 의장)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